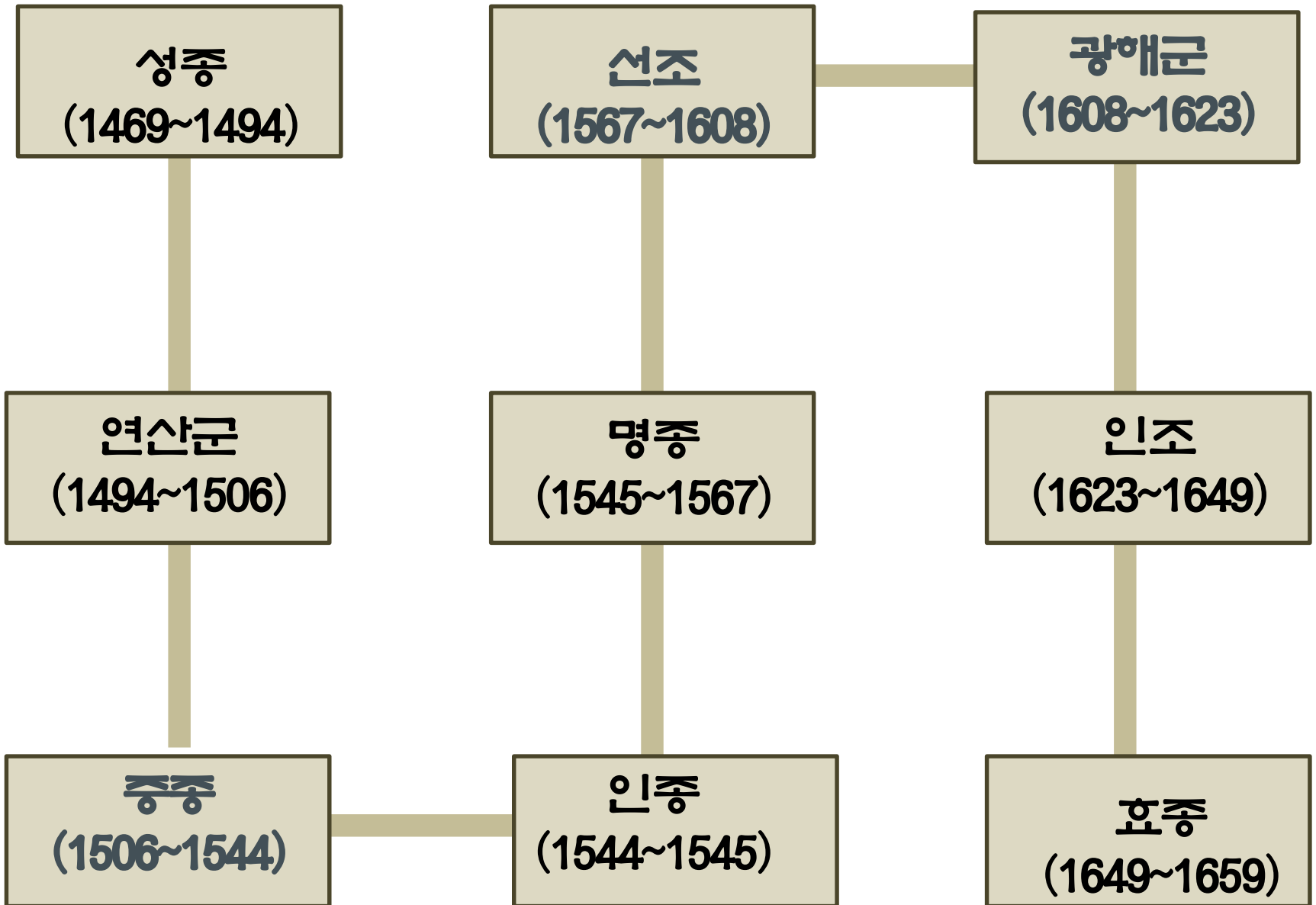


조선 유교와 사림

2019년 4월 9일(화)



훈구와 사림

- **사림의 등장 배경**

훈구파의 득세, 사회·경제적 폐단 야기

- **사림의 사회적 기반**

지방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며 지방 세력으로 자리매김

- **사림의 정치적 성장**

성종 초에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에서 김종직을 비롯한
영남 사림들이 중앙관직에 등용되어 정치세력화

- **사화발생**

무오(연산군 4), 갑자(연산군 10), 기묘(중종 14), 을사(명종 즉위)

조광조의 개혁

■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통치 체제 지향

언론권 강화

천거제의 시행

도학정치의 추구

향약 시행

위훈삭제(훈구세력의 반발을 일으킴)

→ 훈구파세력의 공작(走肖爲王)

→ 조광조 파직(기묘사화)



임진왜란

1) 배경

대내적: 사화, 당쟁으로 정치적 분열과 혼란.

대외적: 도요토미 히데요시(豊臣秀吉) 전국시대 통일 후
봉건 제후의 불만 등을 극복하려고 해외 정복을 기도.
정명가도(征明假道) 요구 조선 거절.

2) 경과

3) 결과

국토 황폐화, 인구감소, 신분동요, 문화재 손실, 明 약화-여진 성장,
일본의 에도막부 수립, 동북아시아 대외 질서의 일대 변혁.

임진왜란(1592): 16세기 말 동아시아 세계대전

한 국

- 임진왜란 (壬辰倭亂)
- 북한 → 임진조국전쟁
- 식민지사회를 겪으면서 전쟁의 승패에 대한 연구 집중
-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
- 이순신의 신격화

중 국

- 항왜원조(抗倭援朝) :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원천
- 실제참전 목적 : 왜의 가도입명(假道入明)에 따라 왜군이 만주땅에 들어오기 전에 방어하기 위해 참전
- 한반도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략 요충지다 라는 인식

일 본

- 분로쿠.케이초의 역 (文祿 慶長の 役)
- 17세기 중엽부터 연구 시작
- 메이지유신(1868) 이후 정한론(征韓論)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본격적 연구 시작

광해군

- 조선 15대 왕
- 1575~1641 (재위 1608~1623)
- 이름: 혼(琿)
-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
- 혼주, 폐주? vs 실리 외교 택한 군주?

* 영화 '광해' 중에서

**광해는 땅을 가진 이들에게만 조세를 부과하고 제 백성을 살리려
명과 맞선 단 하나 조선의 왕이다.**

외교정책

(중립외교)

1) 배경

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과 명 약화 → 여진족 성장 →
후금 건국(1616) → 명이 조선에 원군 요청(1618)

2) 중립 외교

배경: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의 요청 거절 어려움,

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 맺기도 어려움

내용: 명에 원군 파견,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 → 실리 추구

3) 결과

중립외교 정책에 반대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추구했던 서인의 주도로
인조반정 단행

경들은 이 오랑캐를 어찌할 것인가. 우리나라 병력으로 1초라도 막을 만한 형세가 된다고 생각하는가. 지난번 청병 요구의 글이 명나라에서 두 번이나 왔을 적에 내가 걱정하는 바는 ... 군사가 평소에 교련이 되어 있지 않아 하루 아침에 몰아 들어가더라도 싸움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리는 것이었다. ...

경들이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갓 내 말을 틀어막아 우리 군사가 투항한 사정을 명나라에 알리려고만 드니 어찌 이런 어그러진 사리가 있는가.

「광해군 일기」

대동법

1) 배경

전후의 재정궁핍, 국가 수요품과 공물의 불일치
공물의 납부와 수송의 불편 및 개선필요

2) 과정

광해군 즉위(1608) 이원익, 한백겸 건의 → 경기도에서만 실시
'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반대하여...'

대동법에 대한 광해군의 입장은?

3) 대동법

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징수(1결당 16두 → 12두)
농민의 부담이 감소하여 농민은 대체로 환영함.

궁궐공사

- 궁궐 공사 중지? 짓고 또 짓고, 끝없는 궁궐공사?
- 창덕궁, 창경궁, 경운궁(덕수궁), 경덕궁(경희궁),
인경궁, 자수궁의 공사가 광해군 정권 내내 이어짐.

3개월 동안 들어간 비용

쌀 6,830여 석

포목 610여 동 (1동=50필=12석) = 7,300여 석

당주홍 600금 (=60동) = 720여 석

정철 10만근 (정철 1근 = 쌀 1두 7승, 8근=쌀 1석) = 12,000여 석

합계 26,850여 석 => **한 달의 공사비용은 대략 8, 900여 석**

인조반정

(1623년)

- 1) 형을 해치고 아우를 죽이며 여러 조카를 도륙하고 서모를 쳐 죽였고 여러 차례 큰 옥사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.
- 2) 민가 수천 채를 철거하고 두 채의 궁궐을 건축하는 증 토목공사를 10년 동안 그치지 않았다.
- 3) 선왕조의 옛 신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쫓고, 오직 악행을 조장하여 아첨하는 인아(姻婭)인아와 부시(婦寺)들만을 높이고 신임했다.
- 4) 돈을 실어 날라 벼슬을 사고파는 것이 마치 장사꾼 같았다. 부역이 번다하고 가렴주구는 한이 없어 백성들은 그 학정을 견디지 못했다.
- 5) 기미년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장수에게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지시했고,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했다.

인목대비가 내린 교서 중에서 「인조실록」 원년 3월 14일

감사합니다!!